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자포럼 회장



북핵 해법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밝힌다 4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7월 2일 (일) 저녁 귀국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건이 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할 수도 있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의 발언과 남한에 전개되어 있는 전락지신의 감축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문 대통령의 언급은 언급했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 등 안보와 한미 동맹이 흔들릴까 염려했던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킨 성과가 우선 눈에 띈다.

로서 반만 년, 오천년 민족사에서 최대의 민족 융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세계인이 경이와 감탄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訪美)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우리 민족 최대의 숙제인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 실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총괄적인 평가는 성공적이고 훌륭했다. 몇 가지 주요 요점을 정리한다.

첫째, 현재의 제재와 대결 국면의 남북관계를 대화와 평화 지향의 남북관계로 전환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남북 대화를 향한 열망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키면서 제재와 대결을 주장하면 애국자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이고 대화나 교류 협력을 말하면 안보관이 불안한 종북이나 친북, 비(非)애국적인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갈래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 바람직한 통일정책이다. 국민적 지지 속에 전쟁 위험을 줄여 나가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진짜 안보다.

둘째,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으며, 북한 감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체제를 보

장해 주겠으니 핵 개발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지 말아 달라는 대북 평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체제 보장을 위하여 핵과 미사일에 전력투구하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보장을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큰 의미가 있다.

셋째, 특히 남북문제에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적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우리의 의사와 국익에 관계없이 좌우되고 결정되는 약소국의 실용과 파눈볼을 얼마나 많이 당해 왔는가.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미·소·일·러 등 강대국들에게 끌려 다니던 기막힌 역사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서서히 청산해 나가야 한다.

그런다고 미국과의 협력을 소홀히 한다거나 강대국을 배척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변 강대국들과는 당연히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이 민족 주체적 운명 개척을 위한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위한 출발선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제재와 압박, 고압과 봉쇄를 통한 지난 보수정권의 긴장 고조와 군사적 무한 경쟁의 반평화적인 정책과 행태는 전면 수정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수십 년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대화와 화해협력을 하여 신뢰와 상생을 쌓

아 나가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 조국의 비전으로 평화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통일 문제는 보수와 진보, 남남(南南)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 활발한 대화와 교류 협력을 하여 신뢰와 수교(修交)를 하게 되면 핵이나 미사일은 개발 필요성도, 사용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교류협력과 수교조약 등을 통하여 체제 보장을 하지 않으니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쏟아 붓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여 미국의 각종 최신 무기를 10년간 세계 1위 수입국이 되고 모든 대화와 교류를 전부 단절시키고 준(準)전쟁상태를 지속시키는 한심한 악순환을 분단 70여년 했으면 이제 철이 들만도 하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지도 않고, 평화가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실효성도 없는 비핵화(非核化)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라고 나는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 철수를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일부 꼴통 보수세력들은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하면 금방 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방 적화통일이 되고 좌파 세상이 되는 줄 안다. 이런 적대와 대결에 질리지 않는가. 이렇게 앞으로 백년, 천년 가고 참혹한 재앙이 전쟁을 우리 국토, 우리 형제끼리 칠천지일수가 되어 한 번 더 치루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전쟁놀이, 미친 짓거리, 이제는 정말 집어 치워야 한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일 문제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깨어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은 민족사의 흐름을 대결에서 평화로 풀린 위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社說

의료복지 확장 바람직하다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하면 우선 걱정되는 것이 발급비용이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선 적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는 등 단종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병원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 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

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천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최민값 및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한다.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내용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진단서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일단 안도가 된다.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이나 사정을 해리는 정부의 방침에 기대가 크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守眞志滿

지길 수 참진 뜻찰

守眞志滿

▷ 뜻: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뜻이 가득하고, 군자의 도를 지키면 뜻이 편안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스마트폰 중독 대처법

인터넷뱅킹, 쇼핑,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 손안의 온라인 컴퓨터가 되어버린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생활이 편리해진 반면에 사용시간 증가로 인해 시력감소 및 거북목 현상 등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 말하려고 하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도 전

연령층에 걸쳐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스마트폰 중독은 조기 노안, 우울증, 거북목(일자목), 팔꿈치 브레인 현상, 손목터널증후군, 수면 장애, 디지털 치매, 안구건조증, 충동 조작 장애, 대인 예민증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검색창에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을 검색해서 현재 자신의 스마트폰 중독 상태를 알아본다.

두 번째, 사용하지 않거나 꼭 필요하지 않는 스마트폰 어플(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삭제하고, 게임, 채팅 등 장시간 사용하는 어플은 피한다.

세 번째,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찾는다. 운동, 독서 등 아날로그적인 취미생활을 하면 좋다.

네 번째,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마트폰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둔다. 그렇게 하면 수시로 옆에 두고 확인하는 불안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꼭 옆에 두어야 한다면 스마트폰 화면을 뒤집어 놓는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할 것이고, 스마트폰 사용 말고 다른 활동을 취미활동을 찾아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란다.

홍보현 /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사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3배 에너지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